

한국의 위안화 Hub 추진 현황과 시사점

- 대만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목 차〉

- I. 위안화 국제화 현황
- II. 한국의 위안화 Hub 추진 현황
- III. 대만과의 비교 분석
- IV. 시사점

I 위안화 국제화 현황

▶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주요 글로벌 결제통화로 부상

- 중국 정부는 각국에 위안화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역외 위안화의 본토 환류 채널을 확대하여 위안화 활용도 제고
 -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 및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
 - 2014년 12월 기준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국가는 총 13개국¹⁾
 - 통화스왑협정 대상국은 총 28개국, 금액은 약 3조 위안
 - cross-border 위안화 금융거래 채널을 확충, 역외 위안화의 중국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 위안화 적격기관투자자(RQFII) 총 쿼터는 2013년 2월 700억 위안
→ 2015년 2월 3,115억 위안으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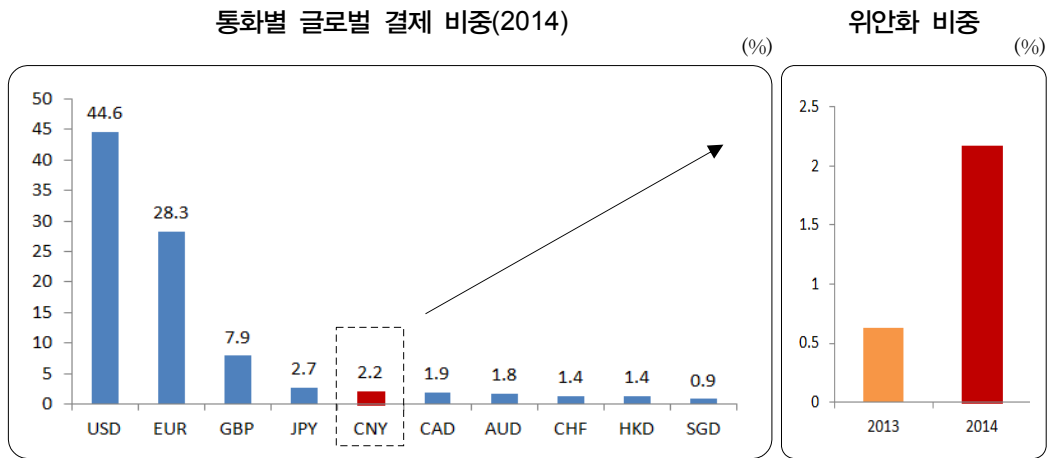
* 본고는 이은영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1)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국가는 홍콩(중국은행), 마카오(중국은행), 대만(중국은행), 싱가포르(공상은행), 영국(건설은행), 독일(중국은행), 한국(교통은행), 프랑스(중국은행), 룩셈부르크(공상은행), 캐나다(공상은행), 카타르(공상은행), 호주(중국은행), 말레이시아(중국은행)

- 후강통(滬港通) 제도를 2014년 11월부터 개시, 위안화를 활용한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매매 허용²⁾
- 상하이 자유무역계좌를 통한 cross-border 위안화 거래 규제 완화
 - 상하이 FTZ 입주기업은 동 계좌를 통해 역내 위안화보다 조달비용이 낮은 역외 위안화 대출 및 해외 본사와 중국내 계열사 간 위안화 여유자금 통합 관리 가능
 - 상하이 자유무역계좌 개설 허가를 받은 외자은행은 총 4곳이며, 이 중 Citi, HSBC는 올해 초 관련 서비스 개시
- 이와 동시에 역내 위안화를 활용한 해외투자 채널을 확대하여 역외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
 - 2014년 11월 위안화 적격국내기관투자자(RQDII) 제도 신설, 역외 위안화 금융상품 수요 증진
 - QDII³⁾와 달리 투자한도 제한이 없음
 - 올해 공식 출범 예정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一帶一路’ 관련 투자 프로젝트에서 위안화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 최근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 가능성 제기
 - 현재 SDR 통화 바스켓은 미 달러화 41.9%, 유로화 37.4%, 파운드화 11.3%, 엔화 9.4%로 구성
 - 위안화의 편입 여부는 2015년 5월 IMF 이사회에서 논의된 이후 10월 회원국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

2) 기존 QFII, RQFII 제도와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는 홍콩 증권거래소를 통해 중국 A주 투자 가능. 올해는 선전과 홍콩 증시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선강통(深港通)이 도입될 예정

3) 국내 적격기관투자자(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ment)는 자격요건을 갖춘 중국 국내 기관 투자자에 한해 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2015년 3월 현재 승인 투자 한도액은 90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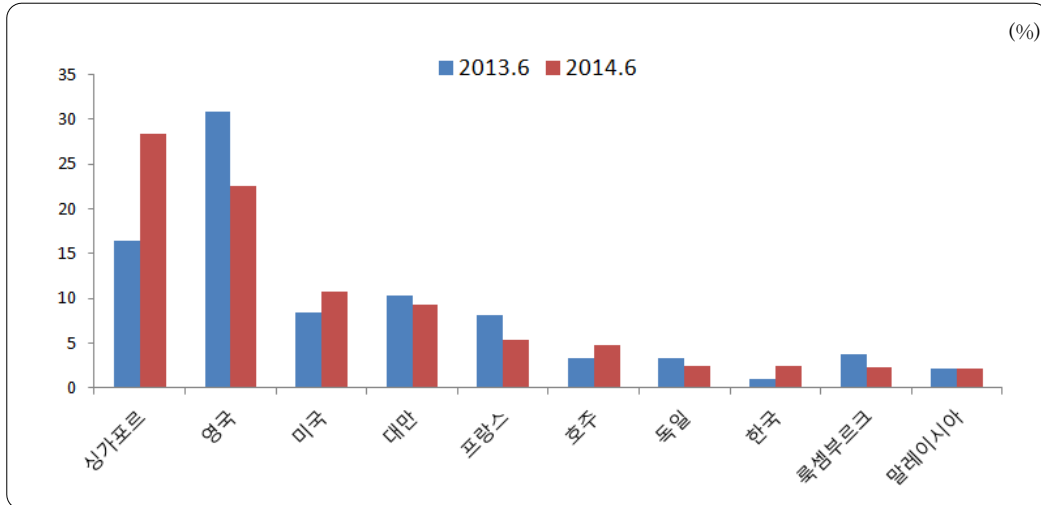


자료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 위안화 Hub 유치에 위한 국가간 경쟁 가속화

- 글로벌 금융 Hub 국가와 중화권 국가 위주로 경쟁구도 형성
 - 대표적 글로벌 금융 Hub인 홍콩과 영국이 위안화 Hub 유치 경쟁 선도
 - 홍콩은 세계 최대 위안화 Hub로서의 입지를 이미 다져 놓은 상황
 - 영국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화 Hub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유럽 국가간 위안화 Hub 유치 경쟁 본격화
 - 싱가포르의 역외 금융 Hub, 국제화된 채권시장, 중화권으로서의 이점 등을 내세워 위안화 거래량에서 런던을 제치고 2위로 부상
 - 2014년 6월 기준, 싱가포르와 런던의 비중은 각각 28.4%, 22.5%

역외 위안화 결제규모 TOP 10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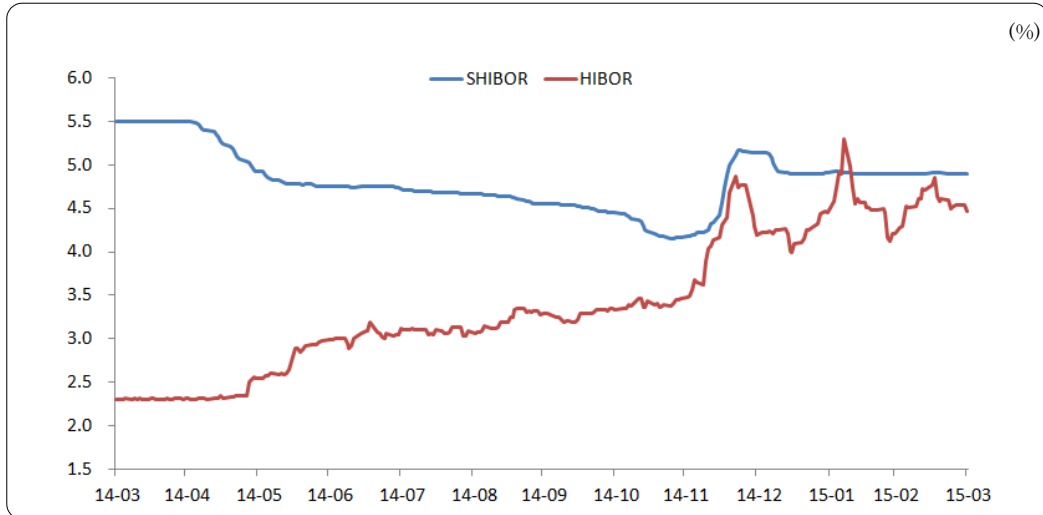


주 : 중국, 홍콩은 제외

자료 : SWIFT

- 위안화 Hub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캐나다, 일본 등도 최근 경쟁 대열 동참
 - 캐나다는 2015년 3월 미주지역 최초로 위안화 거래소 개설
 - 지난해 11월 스테판 하퍼 수상의 訪中 이후 위안화 Hub 추진 급진전
 - 일본 정부는 금년 내로 거주자의 자국내 위안화 표시채권(후지아마채) 발행을 위해 중국에 관련 규제완화를 요청한다는 방침
 - 현재까지는 위안화 청산은행, RQFII 쿼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위안화 Hub 유치 경쟁에서 여타 국가에 뒤처짐
- 역내외 위안화 금리차 축소는 역외 위안화의 본토 환류 채널 확대, 주요국 간 허브 구축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
 - 홍콩 은행간 위안화 금리인 HIBOR와 상하이 은행간 위안화 금리인 SHIBOR간 금리 스프레드는 2014년부터 감소세 지속
 - HIBOR-SHIBOR 간 금리 스프레드는 3개월물 기준 2014년 3월 말 319.7bp
→ 2015년 3월 말 43.5bp로 대폭 감소

홍콩, 상하이의 은행간 위안화(3개월물) 금리 추이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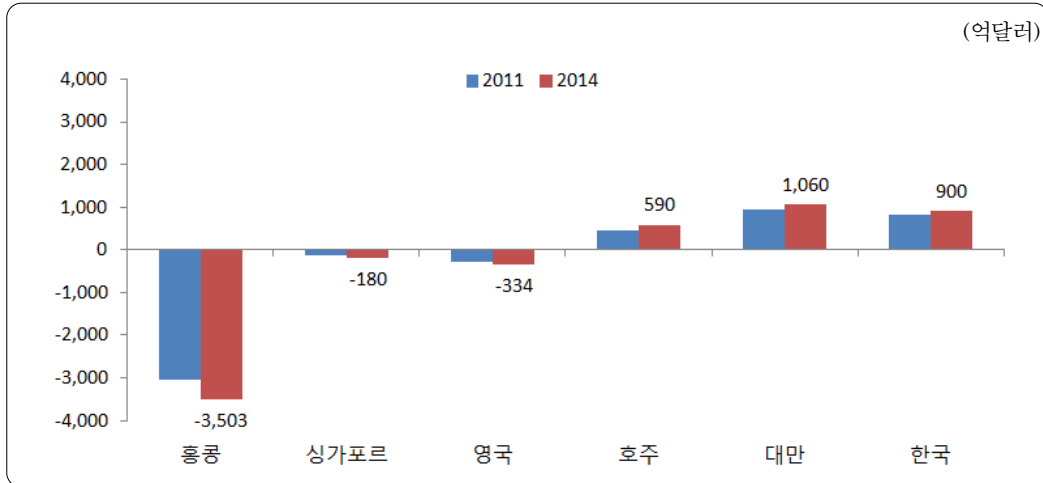
Ⅱ 한국의 위안화 Hub 추진 현황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 실물경제에 기반한 위안화 금융 Hub 조성

-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 위안화 유동성 확보 → 위안화 활용도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핵심 목표
 - 세부 과제는 ①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②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③ RQFII 한도 확보, ④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활성화
 - ‘위안화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들은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
- 대중 무역흑자의 위안화 결제를 통한 국내 위안화 유동성 확대가 선결 조건
 - 2014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약 900억 달러 흑자로, 안정적 흑자 기조 유지

주요 위안화 Hub 추진국의 對中 무역수지



자료 : CEIC

- 금융당국은 T/F를 개설,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 도출하고 이를 추진
 - 위안화 거래 인센티브 제도 도입
 - 2015년 2월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⁴⁾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
 - 국내외 기업 및 금융기관의 위안화 김치본드 발행 유도
 - 외국기업 회사채에 대한 국내외 동시 공·사모 발행 허용 등 외국기업의 채권 발행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
 - 전문 투자자를 위한 공시 의무가 면제된 사모 시장 개설도 검토
 - RQFII의 투자대상인 위안화 채권 관련 투자 제한 완화
 - 공모펀드의 중국 국채에 대한 편입한도를 현행 10%에서 OECD 국가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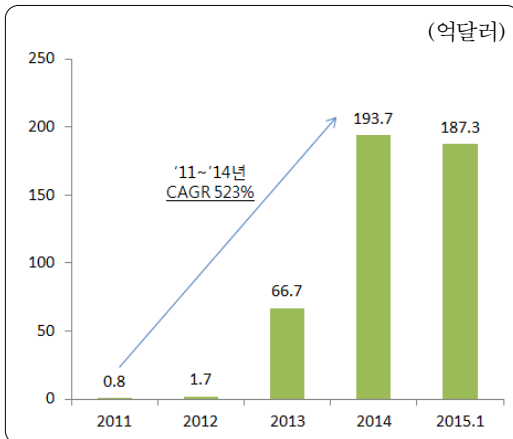
4) 속칭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중 하나로 2011년 8월에 도입된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제외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과. 금번 조치로 위안화 직거래 시장조성자는 원-위안 일평균 거래량만큼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공제받게 됨

2. 성과

▶ 원-위안 거래량과 위안화 예금은 빠른 속도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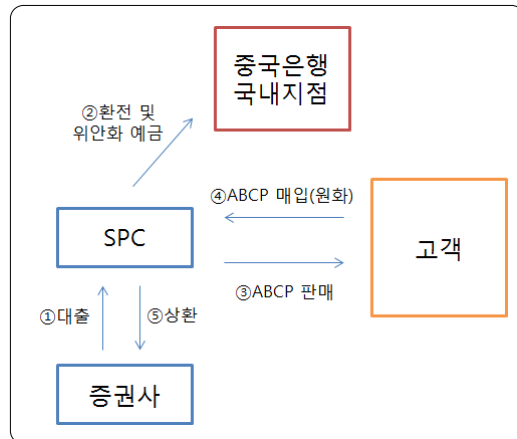
-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이후 한 달간 일평균 거래량은 8.8억 달러(54억 위안)
 - 일평균 거래량이 2억 달러 수준인 엔-위안 직거래 규모 상회
- 위안화 예금규모는 지난 3년간 연평균 523% 증가하여 非중화권 국가 중 1위
 - 2015년 1월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에서의 위안화 비중은 29.7%로, 미 달러화(60.6%)에 이어 2위
 - 국내 위안화 예금 증가는 기관투자자의 ABCP 발행을 통한 차익거래가 견인
 - 올해 초에는 달러-위안 통화스왑(USD-CNH CRS)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

국내 위안화 예금잔액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위안화 ABCP 거래 구조



자료 : 산업은행

- 위안화 김치본드 발행 사례 증가
 - 2014년 10월 국내 최초로 우리은행과 중국 공상은행이 위안화 김치본드 (사모방식)를 3.7~3.8%대 금리로 발행

- 2015년 3월에는 하이난 항공그룹 자회사가 2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김치 본드(사모방식)를 7% 금리로 발행
- 위안화 채권의 상장 및 매매거래, 청산결제 등과 관련된 IT 인프라 정비 및 테스트 작업 완료

▶ 자발적 위안화 무역결제 및 자금조달 수요는 여전히 미미

- 한국은행에 따르면, 對中 수출에서의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2013년 말 1.6%
→ 2014년 말 1.7%로 저조한 수준
 - 동기간 중국의 대외무역 결제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8.4% → 22.3%
- 시중은행이 위안화 대출상품을 출시했으나 실적은 부진
 - 외환은행이 2014년 말 출시한 위안화 대출상품 실적은 1건에 그침⁵⁾

III 대만과의 비교 분석

1. 현황

▶ 한국과 마찬가지로 실물경제 기반의 위안화 Hub를 추진 중이며 경쟁력 우위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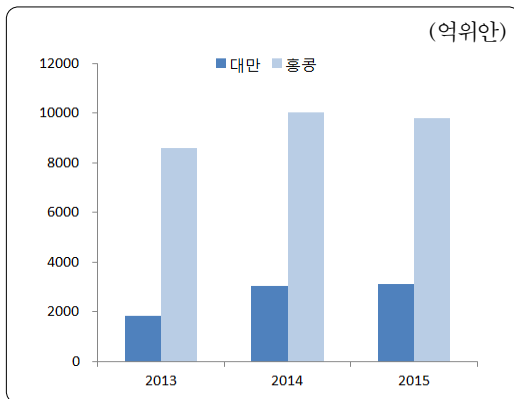
- 위안화 거래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보다 양호
 - 대만은 통화 비국제화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3년 역외 금융센터를 도입하여 금융 Hub로서의 토대 마련
 - 2013년 기준 전체 역외은행(Offshore Banking Units)⁶⁾의 자산규모는 1,600억 달러, 총 기관 63곳 중 외국계 기관은 25곳

5) 서울경제, '삼성, 대중 무역대금 위안화로 직접 결제', 2015.2.25

6) 대만 은행들의 국제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84년 최초의 OBU 지정. OBU는 지준율 규제, 법인세 및 해당 기관 계좌 보유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등 면제. 단, OBU의 新대만달러(TWD) 상품거래는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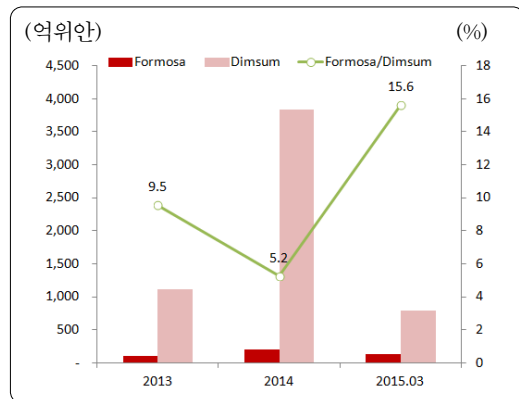
- 2011년 7월부터 OBUs와 국내 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위안화 비즈니스 허용
- 위안화 청산은행(2012.12), 위안화 직거래 시장(2013.1) 등 위안화 Hub 관련 인프라도 한국에 앞서 구축
- 중국 장쑤성 쿤산 지역 소재 대만기업 자회사들은 2013년 9월부터 대만 본사로부터의 위안화 차입 가능
- 위안화 거래량, 채권발행 실적 등에서 한국에 앞서 있는 상황
 - 전체 역외 위안화 결제금액 중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월 기준 9.3%(4위)로 한국의 2.4%(8위) 상회
 - 위안화 예금잔액은 2014년 말 기준 3천억 위안으로 한국의 1.2천억 위안 상회
 - 대만의 위안화 포모사 본드는 위안화 유로채 중 홍콩 덤섬본드 다음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2015년 3월 현재 위안화 포모사 본드 발행규모는 123억 위안으로 홍콩 덤섬본드 대비 15.6% 기록

홍콩, 대만 위안화 예금잔액



자료 : 홍콩 통화청, 대만 중앙은행

위안화 포모사 본드 발행규모



자료 : Bloomberg

- 특히 위안화 운용에 있어 역외은행(OBUs)이 국내은행(DBUs)에 비해 우위를 나타냄
 - 대만의 위안화 예대비율은 2014년 말 기준 5.6% 수준

- Credit Suisse Group AG에 따르면, 대만 금융기관은 위안화 수신액 절반을 중국계 외은지점에 예치
- 역외 위안화 자금의 운용처가 전반적으로 부족, 홍콩의 위안화 예대비율 역시 11% 수준에 불과(2013년 기준)
- 단, OBU의 위안화 예대비율은 28.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냄
- OBU의 위안화 대출액은 158.1억 위안으로, 대만 전체 금융기관 위안화 대출의 93.7% 차지

대만 금융기관의 위안화 예대비율 현황

(단위: 억위안, %)

구분	DBU			OBU			합계		
	예금	대출	비율	예금	대출	비율	예금	대출	비율
2013	1,382.2	1.5	0.1	443.8	125.9	28.4	1,826.0	127.4	7.0
2014	2,471.1	10.6	0.4	551.6	158.1	28.7	3,022.7	168.7	5.6

주 : 대출금에는 어음할인 포함

자료 : 대만 중앙은행(CBC)

▶ 대만은 무역금융에 특화된 글로벌 금융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위안화 Hub를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 노력 경주

- 역외은행(OBU)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위안화 표시 역외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 비거주자가 발행한 포모사본드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세 모두 면제
 - 내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에 대해 각각 17%, 10% 과세
 - 반면 한국은 외국인의 국내발행 채권 투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20%, 이자소득의 14% 과세
- 2014년 4월 Euroclear와 대만의 지급결제시스템연계 서비스 개시
 - 외국인 투자자는 이를 통해 별도의 투자 등록 절차나 자격제한 없이 위안화 포모사 본드에 투자 가능

2. 한국 위안화 허브 유치 전략의 한계점

▶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사실상 거주자에 국한

- 원-위안 직거래 시장은 국내에만 개설
 - － 위안화의 역외 거래는 허용되었으나, 원화의 역외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제한
 - 동 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르면, 非거주자간 원화 이체 및 처분은 자유원계정을 통한 경상거래, 일부 자본거래(상장증권 매매 등)만 허용
- 반면 여타 국가들은 자국통화 -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한 상하이 외환시장에 개설
 - － 영국, 호주 등은 위안화 Hub 유치에 적극적이거나, 위안화 유동성이 부족한 자국에서의 직거래 시장 개설을 서두르지 않음
 - － 일본과 러시아는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자국과 중국에 동시 개설
 - 양국 위안화 직거래 실적은 여타 위안화 인프라 미비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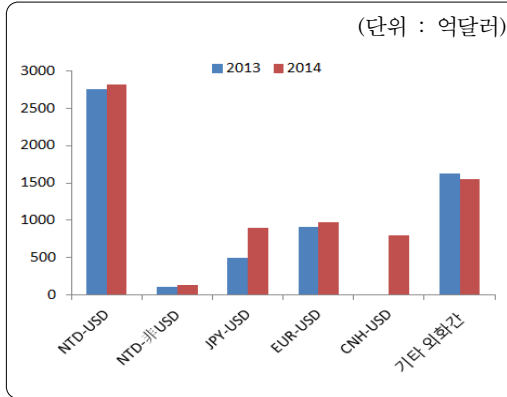
주요국의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현황

		홍콩	싱가포르	영국	호주	대만	일본	러시아	한국
위안화 직거래	자국	○	-	-	-	-	○	○	○
	중국	○	○	○	○	○	○	○	-

자료 : 주요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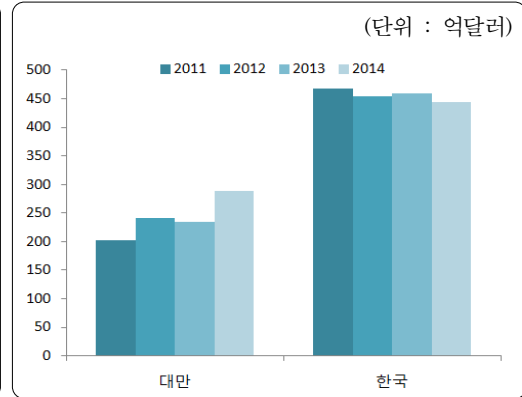
- 대만에서는 위안화 hub 구축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CHN-USD 거래량 급증
 - － 총 외환 거래량에서 CHN-USD 비중은 2013년 0% → 2014년 11.2%로 증가
 - 한국 외환시장에서 CHN-USD 비중은 2014년 12월 일평균 기준 약 2% 수준

대만 외환시장 주요 통화 거래량



주 : 순거래액 기준
자료 : 대만 중앙은행(CBC)

한국, 대만 외환 일평균 거래량



자료 : CBC, 한국은행

- 2014년 대만 외환시장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대비 23.7% 증가
 - 위안화 거래량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헤지 수요 등이 전체 외환시장 거래량 견인
 - 동기간 한국 외환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대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4%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

▶ 국내 금융시장의 낮은 국제화 수준

- 미진한 금융 국제화로 비거주자의 국내 위안화 채권시장 진입 誘因은 낮은 편
 - 현행 규정상 위안화 표시 채권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국내에서 발행 가능⁷⁾
 - 그러나 해외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족한 편
 - 한국은 2010년 11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14%) 및 양도차익(20%)에 대한 면세 조치를 폐지
 - 선물환 포지션 규제(2010년 10월) 등 외환거래 규제강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이탈 가시화

7) 단, 비거주자는 국내 채권발행時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 후 발행조건 및 기관별 인수내역을 포함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외국환거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23조 및 제7-27조 제1항 참고

- 2013년 외은지점 총 40곳 중 7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 일부는 국내 트레이딩 데스크 축소 및 폐쇄로 대응
- 금융 정책의 일관성 부족
 - 한국은 2003년 동북아 금융 Hub 전략⁸⁾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안정과 단기외채 관리를 우선시함에 따라 중단된 상태
 - 1단계(2004~2007), 2단계(2008~2010) 시기 제시된 7대 과제와 후속 조치들은 완료되었으나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이 충분치 않고 성과도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⁹⁾
 - 2010~2011년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도입한 이래 자금 유출입 및 외환거래 규제 기조 유지
 - 같은 맥락에서 금융당국은 2011년 7월 김치본드 발행을 사실상 금지했다가, 2013년 말부터 외화 실수요 김치본드 발행 독려
 - 달러 표시 김치본드가 원화 용도로 전용되어 단기외채 증가 및 원화강세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국내 금융기관의 김치본드 투자를 억제
 - 現 정책환경은 외화 실수요 김치본드에 대해 우호적이나, 자금용도 증빙은 시장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8) 1단계(2004~2007): 외환제도 및 금융규제 등의 금융시스템을 개선하여 금융허브 기반 구축 →
 2단계(2008~2010): 자산운용업 등의 선도 금융시장 발전을 통해 특화금융허브 완성 →
 3단계(2011~2015):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부상

9) KIEP,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과제”, 2008. 02 참고

원화용도 김치본드 규제

- 채권시장의 국제화 미진으로 국내 외국통화 표시 채권 발행자 및 투자자는 거주자 위주
 -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외화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낮아, 외화채권 발행 후 이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
 - 주요 투자자인 외은지점은 본점 등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김치본드 인수
 - 외국환 은행은 기업의 Sell & Buy 거래에 대한 반대거래 실행
 - 단기외채를 조달하여 이를 매도함에 따라 원화 강세압력 증가
- 한국은행은 2011년 7월 단기외채 증가 및 원화강세 심화에 대한 우려로 국내 금융기관의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
 - 원화용도 여부를 판별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자에 대한 규제 대신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임

- 환율 안정 및 단기외채 관리에 치중하는 現 기조 하에서는 위안화 김치본드에 대한 우호적 정책 환경도 시장 상황에 따라 반전될 수 있음
 - 위안화 사용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안화 김치본드 발행은 여타 통화 轉用 및 CRS 금리를 활용한 차익거래 수요에 의존할 가능성
 - 위안화 김치본드 투자자 구조도 위안화 조달이 유리한 중국계 외은지점 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달러 표시 김치본드 투자자 구조

(단위: 억달러, %)

은행	국내 은행	외은 지점	(일본계)	투신사, 자산운용	보험사	여전사	증권사	기타	총계
148.2 (86.9)	17.2 (10.1)	131.1 (76.9)	89.2 (52.3)	4.2 (2.5)	9.7 (5.7)	0.4 (0.2)	3.1 (1.8)	4.9 (2.9)	170.5 (100.0)

주 : 1) 2011년 6월말 기준, 외국환업무취급기관(220개)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2) 기타는 일반기업, 개인, 비거주자 등, ()는 전체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

▶ 현 단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려움

- 국내 금융기관이 위안화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배타적 우대 조치 필요

- 중화권 금융기관은 각종 우대조치를 기반으로 시장 선점노력 강화
 - 중국 정부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에 한해 중국내 특정 지역에서의 cross-border 위안화 거래를 허용
- 위안화 적격기관투자자(RQFII) 쿼터 확보만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이 중국 자본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나타내기 어려움
 - 각국의 RQFII 쿼터는 금융기관의 국적과 관계없이 자격요건을 충족,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확보 가능
 - 미래에셋운용 홍콩법인은 2013년 11월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홍콩에서 RQFII 자격 획득

주요국의 위안화 Hub 인프라 구축 현황

(단위 : 억위안)

	홍콩	싱가포르	영국	호주	대만	한국
위안화 청산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RQFII 쿼터	2,700	500	800	500	1,000	800
Cross-border 위안화 거래 특구 유무	첸하이 경제특구	쑤저우 공업단지	-		쿤산 지역	-

자료 : 한국은행, 각종 언론 보도

- 중국계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국내 위안화 김치본드 발행도 중국 정부의 승인 필수
 - 중국 정부는 홍콩을 위안화 Hub로 육성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딴섬본드 발행에 우호적인 태도 견지
 - BofA Merrill Lynch's Dim Sum 지수에서 중국계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72%
 - 국내 위안화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중국계 금융기관의 참여가 매우 중요
 - 중국 금융기관들의 역외 조달 위안화는 중국 본토 송금이 가능하나, 非중국계 발행자는 제한

- 위안화 투자처 확보가 미진할 경우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노력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2014년 무역협회 설문조사에서, 對中 무역업체들은 위안화 결제에 소극적인 이유가 달러 결제 관행(33%)과 제한적 위안화 사용처(12%)라고 응답
 - 무역업체의 위안화 통화스왑자금 활용 의향이 낮은 이유도 달러화 대비 제한된 위안화 사용처(64%)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은 2013년 1월부터 한·중 통화스왑 자금(3,600억 위안)을 활용한 위안화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적 미미

IV 시사점

▶ 위안화 Hub 구축 성공의 관건은 해외 투자자와 외국기업의 유치 여부

- 국내 무역기업의 환전 비용 감소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위안화 금융 Hub 구축에 한계
 - 非거주자 입장에서 非국제화된 원화와 위안화간 직거래 시장, 여타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위안화 거래 인프라만으로는 국내에서 투자 및 자금조달을 확대할 유인 부족
-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조치는 단기 효과에 그칠 가능성
 -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의 관건인 위안화 활용도 제고는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
 -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 파급력이 비교적 낮고 非중화권 국가인 한국에 배타적 우대 정책을 제공할 유인은 높지 않음

- ‘위안화’에 대한 경제·외교적 노력만큼이나 ‘금융 Hub’로 거듭나기 위한 국내 금융시장 국제화 노력 및 인식 변화 필요
 - 글로벌 자금 운용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국내 금융기관이 위안화 자산운용 부문에서만 예외적 경쟁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낮음
 - 위안화 금융 Hub 구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 Hub’로서의 시장,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위안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자발적 위안화 비즈니스 수요 확대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위안화 Hub 전략이 종합적인 금융 선진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

- 거시건전성과 금융업 선진화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risk-taking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 중장기 위안화 Hub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원-위안 직거래 시장과 한·중 통화스왑협정을 기반으로 위안화 Hub 구축과 원화 국제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국내 금융업 경쟁력 제고에 시너지 효과 기대 가능